



김건국

깜짝 활약 김건국 “잃을 것 없는 자가 더 세다”

‘잃을 것 없는 자’ 김건국의 특별했던 2023시즌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포스트 시즌 꿈은 꿈으로 끝났다. 아쉬움이 가득한 시즌이지만 자신의 간절했던 꿈을 이루면서 많은 이에게 희망을 선물한 이도 있었다. 1년의 공백을 딛고 1군 마운드에 올라 KIA 선발진에 힘을 실어준 김건국이 그 주인공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건국을 영입했을 때만해도 그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건국(개명 전 김용성)은 2006년 덕수고를 졸업하고 2차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부산 유니폼을 입었던 ‘특급 기대주’였지만 부상 등에 시달리면서 NC, KT, 롯데 등에서 88경기에 출전한 게 전부였다. 1년의 공백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 등으로 신음하던 선발진에 큰 힘을 보탤수 있었다. 6경기 16이닝,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김건국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마운드를 지켜줬고, 그가 나온 6경기에서 팀은 5승을 챙겼다.

김건국은 “NC페디와 선발로 만났는데 후배들한테 ‘잃을 것 없는 놈이 더 세다’고 했었다. 페디보다 먼저 내려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웃었다. 이날 김건국은 ‘20승·200탈삼진’에 빛나는 페디를 상대로 4.2이닝 1실점의 밀리지 않는 승부를 해줬고 팀은 6-4 승리를 거뒀다.

공 하나 하나에 간절함을 담은 김건국은 “2018년 롯데에서 등판했는데 2007년도 이후 11년 만이었다. 2군에 오래있었지만 버릴 수 있던 것은 ‘단 한 경기’라도 뛰고 싶은 마음이었다. 매년, 매 경기를

공 하나 하나에 간절함 담아 최고참 됐지만 신인처럼 던져 NC 페디와도 밀리지 않는 승부 1년 공백 딛고 마운드 힘 보태

농칠 수 없었다”며 “가족에게 미안할 정도로 겨울에도 쉬지 않고 야구를 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와이프가 올해도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줬다. 처음에는 말했는데 ‘역올해서 야구 못 그만 둘 것 같다’는 말에 와이프가 ‘나가서 운동 해봐’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때 눈물이 많이 났다. 올해 약속을 지키면서도 많이 웃었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노력이라는 재능을 발휘했다.

김건국은 “남들이 놓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노력을 놓치지 않았다. 남들 할 때 나는 더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했다. 실력은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하려고 했고, 뭔가를 찾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 자체도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도 올 시즌 결과를 만든 힘이 됐다. 김건국은 “예전에는 삼진에 대한 욕심이 컸고, 작은 변화구를 던지려고 했다. 숫자, 데이터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KIA와서 퓨처스 승승락 감독님과 이야기하면서 ‘심플’하게 바뀌었다.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 타자들이 어렵게 생각한다면서 쉽게 생각하라고 하셨다. 심플하게 하자기 원동력이 됐다”며 “구중은 단순하게 하면서 빠른 템포로 바로 승부하

니까 타자들이 어려워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공을 저 코스에 정확하게 던질까 생각하면서 공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던진다.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던지는 공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몸쪽 승부를 많이 했다. 예전에 내 장점은 빠른 직구를 몸쪽에 잘 투구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구종으로 속하려고 하다 보니가 잘 안 됐다. 심플하게 내뱉는 게 낫다”며 “타자가 아니라 내 컨디션이 중요하다. 상대가 잘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한테만 집중하게 됐다. 준비과정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 공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새 팀에서 투수 최고참이 됐지만 김건국은 가장 거침 없이 신인처럼 공을 던지기도 했다.

김건국은 “이상훈 해설 위원이 고양 월드컵을 때 코치님이셨다. 올해 첫 등판하고 코치님한테 전화가 왔었다. ‘어린 선수처럼 씩씩하게 던졌다. 너 진짜 투수다. 투수 같다. 멋있더라’라는 말을 해주셨다. 그 말이 정말 용기가 됐다”며 “내가 FA선수도 아니고, 커리어가 어마어마했던 선수도 아닌데 KIA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선발하면서 5이닝 못 채운 건 아쉽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깨고 싶고, 어떤 보직이든 심플함에 더 집착할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건국이 형 나가면 정말 공 몇 개 안 던지고 끝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올 시즌 KIA 팬들에게 김건국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많이 뛰는 모습, 파이팅 있는 모습, 어린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 KBO, 내년 시즌부터 도입

2024시즌부터 KBO에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가 도입된다.
 KBO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즉각적으로 선수를 수급하기 어렵고,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소속 외국인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각 구단은 부상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후속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경기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장기 부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후 새로운 선수를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재활 선수가 등록된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선수가 복귀할 경우 대체로 영입한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해야 한다.

한편 대체 외국인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선수와 마찬가지로 1개월 당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고, 지역 체육인재 양성 요람 역할 ‘톡톡’

전국체전 21개 종목 226명 출전 금·은·9·동 16 등 메달 45개 역대 최다 금메달에 사상 최고 득점



광주체고 김승현·김정민이 지난달 16일 장성호조경정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조정 여자18세이하부 더블스컬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뒤 육철수(왼쪽 두 번째) 교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에서, 김지선·서예서가 여U18 경량급더블스컬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중핀수영도 여U18 표면400m의 황윤영과 표면200m의 양현지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은·3·동 2개를 따내며 726점을 얻었다.

레슬링은 여U18 자유형76kg의 임선교와 남U18 자유형97kg 이재혁, 남U18 자유형125kg 이준혁의 금메달을 포함 금·은·3·동 4개로 537점을 획득했다.

육상 여U18 100m허들의 김찬송은 2연패를 일었고, 태권도 여U18 -58kg 김가현은 금빛 발차기에 성공했다.

전국체전 한 달 전 경연 선수들로 구성해 만든 수구팀은 취약 종목으로 여겼으나 동메달로 388점을 따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육철수 광주체고 교장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광주체고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일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 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과 시 교육청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뒷방울을 흘려 지역 체육 영재의 요람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인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대회 성황리 마무리



지난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6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질주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초중생 300여명 참가 기량 겨뤄

광주지역 꿈나무 선수 발굴과 지역 엘리트 선수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된 육상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한 ‘제6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지난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초·중학교 학생선수 300여명이 참가해 54개 세부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대회는 초등부 24종목, 중학교 30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빛고을초등학교는 남자초등부와 여자초등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선운중학교는 남자중등부에서, 수피아여자중학교는 여자중등부에서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

다. 입상 학교에는 트로피와 소정의 상품을 줬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의 체력측정과 운동 처방 체험 부스, 양궁·역도 종목 체험 부스, 광주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돼 참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특히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이자 황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김국영의 팬 사인회 부스에는 ‘미래의 김국영’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로 학생들이 경쟁보다는 운동을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라며 준비했다”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선순환 체육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앵그리 애니**
- 4관 **톡 투 미**
- 5관 **소년들**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9관 **키리의 노래, 용감한 시민, 시물런트**
- 7관 **씨네커블 30일**
- 8관 **씨네커블 소년들, 용감한 시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술로이스츠 & 이만 보스트리치 '일뤼미나시옹'**
 일시: 2023-11-12(일)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10.25 **11개강**

살어떻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